



고대안산병원뉴스

KOREA UNIVERSITY ANSAN HOSPITAL NEWS

NOVEMBER / DECEMBER, 2015

발행 | 01월 28일 · 격월간 · No.55

발행인 | 차상훈 · 발행처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고잔동) · 전화 | 1577-7516 · Fax | 031)412-5659 · 홈페이지 | http://ansan.kumc.or.kr · 발행일: 01월 28일 (격월간)



고대 안산병원 건강증진센터 개소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약속

고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이 11월 27일에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별관 1층에 건강증진센터를 확장하여 오픈 행사를 가졌다.

새로 단장한 오픈식에서는 차상훈 병원장을 비롯하여 제종길 안산시장 및 다수의 외부 인사들과 병원 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차상훈 원장은 오픈식에서 "이번 건강증진센터 개소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의 예방의학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거라 기대하며 외국인 환자 유치의 초석이 되는 건강증진센터이니 만큼 최고의 시설로 리모델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안산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인 고대 안산병원이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새롭게 단장한 건강증진센터가 앞으로도 안산 뿐 아니라 경기 서남부지역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역할을 담당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대안산병원 건강증진센터는 특성화된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 조기발견의 경우 해당 질환 전문의와의 신속한 연계로 환자가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과 진료·치료를 한데 묶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건강증진센터는 앞으로도 고객의 요구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며 항상 소중한 고객의 건강관리를 위해 앞서는 전문의료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How to contact 고대안산병원

- 전화 예약 - 진료예약센터 : 1577-7516
예약시간 : 평일 08:00 ~ 18:00, 토요일 08:00 ~ 13:00
- 인터넷예약 - 홈페이지(ansan.kumc.or.kr)에서 회원가입 후 예약
※예약일정이 확정되면 진료일 전날 고객님의 핸드폰으로 SMS문자가 발송됩니다.
- 진료협력센터: 031)412-5103 • 응급의료센터: 031)412-5381 • 건강증진센터: 031)412-5865



고려대학교 병원 모바일웹 접속

Contents

2P 전문 진료과 소개

건강증진센터



3P 건강정보

선진국보다 높은 증가,
유방암 이제는 예방이다



6P 단신

소화기내과 이상우 교수
소화기학회장 취임



7P 심포지엄, 연구동정

안산시 재난지원
유관기관 심포지엄



8P 로봇수술 도입

최첨단 로봇수술로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고대 안산병원 건강증진센터 장비, 시설, 인력 3박자 갖춰

바야흐로 웰빙시대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한 노력들은 사회전반에서 열풍을 넘어 신드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건강과 의료에 대한 관심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 중심에는 병원이란 공간이 아플 때 찾는 곳이라는 '치료중심의 의학'에서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예방하는 '진단과 예방중심의 의학'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욕구충족과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건강주치의, 고대 안산병원이 최고급, 최첨단 검진센터 리모델링을 통해 차원이 다른 프리미엄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적 규모의 검진센터로

지난 2002년 개소한 고대 안산병원 건강증진센터(이하 검진센터)는 안산 및 시흥지역 유일의 대학병원 검진센터로 개소당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별관 1층 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별도로 구축된 검진센터는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내부인테리어도 병원내부와 차별화했다. 안산병원 검진센터는 지역에서 최첨단 검진센터로서 명성을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해안 고속도로와의 높은 접근성과 경기서남부지역의 중심병원으로 지역발전을 통해 전국규모의 검진센터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새롭게 리모델링을 통해 거듭난 고대 안산병원 검진센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변화는 검진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병원의 이미지가 아닌 편안함을 선사하며 이러한 환경적 요소 속에서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기존 건강진단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고객의 편의를 확충한 것이다. 입구에서부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눈의 피로를 줄인 조명까지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눈에 들어온다. 검진센터의 환경적 업그레이드는 건강검진의 두려움과 검사에 대한 거부감을 줄임으로써 검진이 올바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검사자들에게 여유로운 검사를 가능케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테리어의 변화는 원칙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검사자의 편안한 동선을 기초로 배치됨으로써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검사자에게 대기시간을 줄임으로써 검사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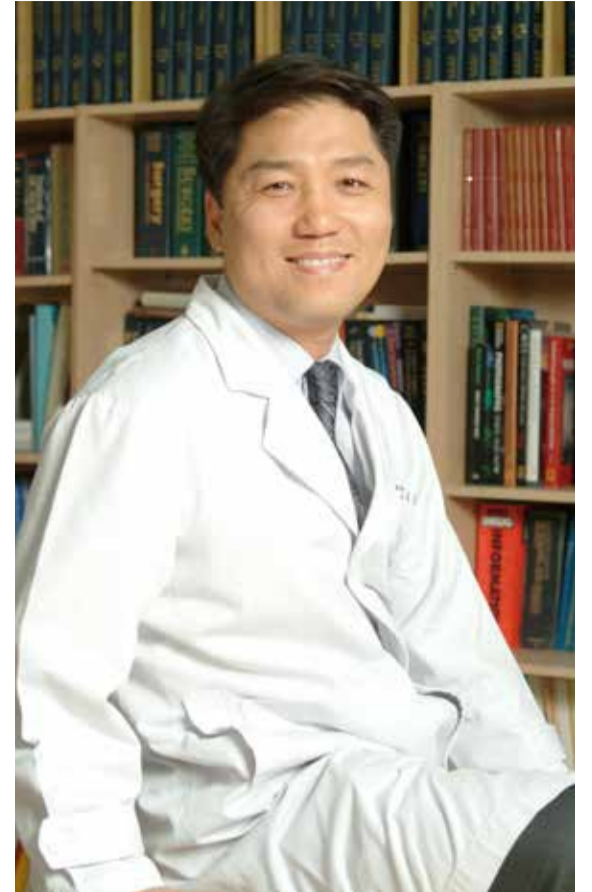
최첨단 장비, 정밀진단으로 모든 질병을 잡는다.

고대 안산병원의 검진센터는 첨단 검사장비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검사를 통해 질병 여부를 정확히 밝힐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현대인에게 있어서 암은 조기검진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암을 밝혀낼 수 있는 최첨단 PET-CT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신에 암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뇌졸중에 대한 검사 역시 MRI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첨단 뇌혈관조형술을 통한 검사도 가능한데 이러한 검사를 통해 뇌졸중의 가족력이 있거나 성인병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도가 높은 뇌졸중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최신식 초음파를 통해 간, 담낭, 전립선 등 다양한 항목에 검사가 이루어지며 여성에게 필요한 골밀도검사기, 유방 X-선촬영기(Mammography) 등 다양한 최신식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 검사의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별도의 내시경실을 운영함으로써, 대장 내시경의 시간을 줄이고 위, 식도, 십이지장, 대장, 등 우리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들에 관한 검사가 이루어진다.

전문의료진의 개인별 맞춤진단

고대 안산병원에서 받게 되는 검진은 소화기내과, 가정의학과, 외과 등 각 질환별로 전문 의료진이 진단과 검사에 직접 참여해 검사의 질을 한층 높이고 있으며, 무엇보다 검사 전, 후로 전문상담을 실시함으로써 기본검진 외에 검사를 받는 개인에게 꼭 필요하고 적합한 맞춤형 검진을 제공해 검사가 가능한 범위의 모든 질환까지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검사한 결과는 국내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구축한 의료정보시스템(OCS)과 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및 전자의학기록(EMR) 시스템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검진에서 발견된 이상 징후는 전문 진료과의 외래 진료로 연계하여 빠른 치료를 돕는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건강증진센터 Tel. 031-412-5866



선진국보다 높은 증가, 유방암 이제 예방이다

현대에 들어 생활습관의 서구화로 유방암 환자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유방암은 여성암 중에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여성이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선진국보다 그 증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출산 및 수유의 감소,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발병 연령 또한 40, 50대 여성 뿐만 아니라 20, 30대 여성에게서도 유방암 발병이 늘고 있어 이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10월은 '유방암의 달'로 전 세계에서 '핑크리본 캠페인'을 실시할 만큼, 유방암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20, 30대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유방암은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자.

성이 유방을 보존하면서 유방암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또 즉시재건술을 통해 유방조직을 제거한 후 바로 다시 원래의 모양으로 복원시킬 수 있어, 여성의 상징인 유방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다. 보통 이런 즉시재건술은 유방암을 제거하고 그 모양을 다시 복원하는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며,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과 자기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나뉜다. 수술 방법은 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결정되며, 이런 재건수술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수술 후 찾아오는 여성으로서의 상실감과 우울증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도움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손길수 교수

유방암 왜 생기는 걸까?

유방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원인이 병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가족 중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걸린 사람이 있거나, 12세 이전의 초경과 55세 이후의 폐경, 임신 및 분만의 경험이 없거나 30세 이후의 첫 분만, 과다한 지방섭취 및 비만, 호르몬제 남용, 과다한 음주 등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는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현대화되었고 식생활이 서구화되어 과다한 지방섭취와 이로 인한 비만이 늘고 있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많아지면서 독신여성이 증가되고, 결혼연령이 늦어졌으며, 자녀수가 줄고, 모유 수유가 줄어든 것을 들 수 있다.

매월 자가진단은 필수! 30세 이상은 매년 정기검진 받아야

유방암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아무 증상도 없기 때문에 조기진단을 위해서는 자가진단이 중요하다. 자가진단을 통해 초기에 발견한다면 생존율이 매우 높고 유방도 절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기적인 자가진단은 필수적이다. 자가진단은 생리 뒤 5일전후가 적절인데, 생리 후에도 멍울이 계속 잡히거나 육안으로 볼 때 유방의 크기나 모양이 변하거나 혈성, 장액성 유두분비물이 한쪽 유두의 한 개의 유선관에서 보일때, 유방피부에 함몰, 부종, 발적, 습진 등이 나타난다면 바로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자가진단만으로는 발견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30세 이상의 여성은 매년 병원을 찾아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 유방암의 정확한 검진은 병원에서의 진찰과, 유방촬영 및 유방초음파 검사, 세침천자세포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최근에는 유방자기공명촬영 및 입체자동흡입조직검사기를 이용하여 진단의 정확성을 더 한층 높이고 있으며, 특히 자동흡입조직검사기(맘모툼)은 진단은 물론 2.5cm 이하의 작은 멍울을 외래에서 바로 국소마취 하에 흉터 없이 제거 할 수 있다.

수술해도 원래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어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되면 보통 유방을 제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현재는 많은 여

유방내분비외과 손길수 교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외과 과장 겸 유방내분비외과 분과장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암센터장
대한외과학회, 한국유방암학회, 대한갑상선내분비내과학회 소속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병원 외과 교수 역임

전문분야

유방, 갑상선질환, 내분비질환

진료시간

종일(월) 오후(수)



안산상공회의소 '심장병 환우 위해 500만원 기탁'

고대 안산병원(병원장 차상훈)은 11월 30일 오전 11시, 병원장실에서 안산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장병 환우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500만원을 병원에 전달하였다.

이날 전달식에는 차상훈 병원장, 송효성 경영관리실장, 이경진 간호부장, 권춘기 총무팀장이 참석했으며, 안산상공회의소에서는 김무연 회장, 김진근 사무처장, 이성균 기업지원본부장, 김철영 회원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모금은 안산상공회의소가 지난 10월에 개최한 "사랑나눔" 상공인 골프대회에서 나온 수익금을 전달받았다.

차상훈 병원장은 "고대 안산병원의 심장병 환우 중 꼭 필요한 분에게 성금을 전달하겠다"며 "병원에서도 환우의 쾌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15 호스피스 총회 성료

고대 안산병원 호스피스(회장 혈액종양내과 성화정)는 지난 12월 9일 별관 지하 소강당에서 '2015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호스피스회 회장 혈액종양내과 성화정 교수, 부회장 가정의학과 김도훈 교수를 비롯한 교직원과 봉사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평소 호스피스에 관심이 있는 교직원들이 매달 3천 원씩 월급에서 공제한 모금으로 병원에서 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 중 3명의 환자들에게 성금을 전달하여 따뜻한 정을 나눴다. 또한 15년동안 봉사하신 이용선 봉사자에게 감사패와 1년 우수봉사자에게는 우수봉사상을 전달하였다. 혈액종양내과 병동의 안가현 간호사는 암 환자의 죽음의 과정을 바라보며 느낀 안타까운 마음을 수기로 낭송했으며 함미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봉사를 하며 만난 환자분의 죽음으로 진행되는 심경의 변화와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감사함을 수기로 낭송 하였다. 2015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현재 안산병원 호스피스회의 현황 등을 짚어보는 등 지난 한 해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호스피스회장 성화정 교수는 "여기에 계신 봉사자들 및 회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호스피스 환자분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내년에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대 안산병원 호스피스회는 1988년에 창립한 이래 여러 자원봉사자 및 회원들의 노력과 협조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호스피스 자원봉사의 정신을 꾸준히 전파해 왔다.



이재필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회장, 안산병원 발전기금 1천만원 기부

고대 안산병원(병원장 차상훈)은 11월 16일 오전 11시 30분, 병원장실에서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이재필 교수회장으로부터 안산병원 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차상훈 병원장, 송효성 경영관리실장, 이경진 간호부장이 참석했으며, 내원하는 환자 및 보호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부 의 뜻을 밝혔다.

이재필 교수회장은 "개원30주년을 맞이한 안산병원이 지역유일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상훈 병원장은 "지속적인 관심으로 안산병원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필(간호학과 75학번) 교수회장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회장을 역임하며, 본교 및 간호대학 증축기금, 고려대학교의료원과 산하 병원의 발전기금 및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장학금 기부 등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다.



"소아당뇨 관리, 잘 따라하면 어렵지 않아요" 고대의료원, 2015년 소아당뇨 가을 건강교육 개최

고려대의료원 소아청소년 당뇨교실(위원장 이기형 대한소아내분비학회)은 지난 11월 4일(수) '2015년 소아당뇨환아와 가족을 위한 가을건강교육'을 구로·안산병원에서 동시에 개최했다. 일일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당뇨 환아 및 가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는 ▲간호교육 : 인슐린! 제대로 알고 제대로 주사하자! ▲영양교육 : 당뇨 식사관리, 올바르게 알기 ▲의료교육 : 제 1형 당뇨 합병증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소아 당뇨 환아와 가족들에게 당뇨관리에 대한 알찬 정보를 제공했다.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영준 교수는 '당뇨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하는 만큼 교육은 환자와 보호자 모두가 참여하는 자리로 진행하고 있다'며 '올바른 치료와 식사관리를 통해 당뇨합병증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환아 보호자는 '당뇨에 대한 유익한 정보는 물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아 보호자들을 만나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고대의료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대 안산병원, 흑룡강웨캉상무자문유한공사와 MOU 체결

고대 안산병원(병원장 차상훈)은 12월 23일 대회의실에서 중국 흑룡강웨캉상무자문유한공사(사장 도홍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차상훈 병원장, 도홍매 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중국 하얼빈시 현지 업체들과의 관계 구축 및 VIP환자(검진환자, 중증환자 등)유치에 상호협력하기로 했으며 하얼빈 소재 대학 및 상급병원 등과 연계하여, 의료시스템과 학문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상훈 병원장은 “외국에서 유치된 중증환자들의 수술 후 예후에 따른 분쟁에 대하여 양 기관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대 안산병원의 높은 의료수준으로 유치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도홍매 사장은 “중국환자들은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으로 해외진료를 가며 고가의 건강검진과 중증환자 수술을 원하지만 한국의 경우 브로커에 대한 문제로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본사는 중국에서 직접 환자를 홍보하고 유치함으로써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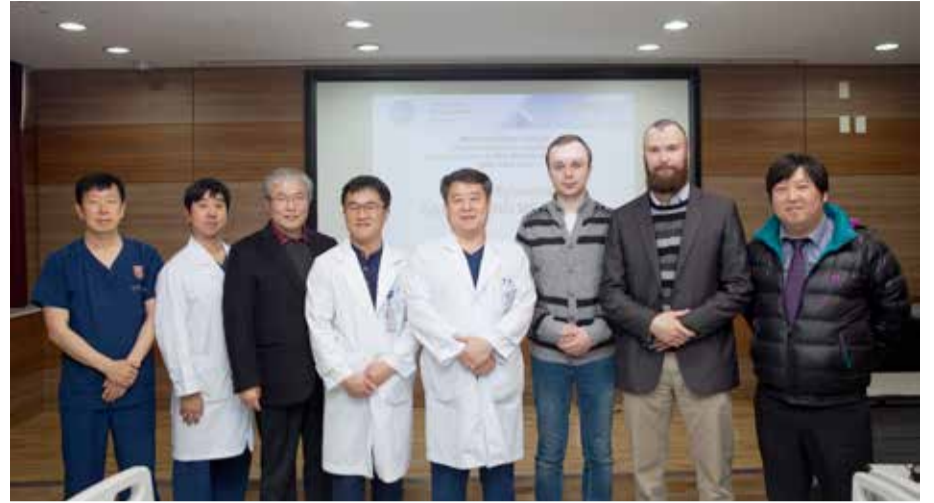


나를 위한 콘서트! 몸과 마음도 힐링 메르스를 이겨낸 의료진과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음악회

고대 안산병원(병원장 차상훈)은 12월 10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층 로비에서 아르코 의료기관 순회공연 ‘당신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했다.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원한 많은 분들과 교직원 그리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에게 활력을 주고 쾌유를 응원하고자 인기 마술사 최현우와 10여명의 현악 앙상블의 조이오브스트링스가 출연하여 대중에게 익숙한 곡들을 연주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월에 메르스 집중 피해 병원의 환자 및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병원협회에서 후원하였다. 




모스크바항공대학 레이더 응용의료기기 시연 및 협력추진

고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11월 26일 오후 1시 중회의실에서 모스크바항공대학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청의 주관하에 레이더 응용의료기기 시연을 진행했다.

한·러 산업기술협력센터의 유라시아 기술협력거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방문은 모스크바 항공대학에서 개발하고 러시아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Pulse Wave Velocity Meter’ 시연과 연구개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내방하였다.

최병민 진료부원장, 송우혁 기획실장, 문성우 응급의학과장 등이 참석하여 레이더 응용의료기기 임상적용 방안 및 향후 발전계획 등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최병민 진료부원장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청과는 연구협력 MOU를 체결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오늘 만남을 통해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향후 미국 FDA 인증을 통해 기술 사업화를 실현하는 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후 고대안산병원-모스크바 항공대학-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청 주요연구자 간 교류를 통해 의료기기 R&D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인증 1년차 자체조사 시행

고대 안산병원(병원장 차상훈)은 지난 11월 23일 ~ 3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약 40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기관인증 1년차 자체조사 시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의료기관인증 1년차 자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관인증 1년차 자체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자체조사를 통해 전직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위해 실시됐다. 교육은 자체조사 기준 및 방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전 교직원과 진료부로 대상을 나누어 총 5회에 걸쳐 시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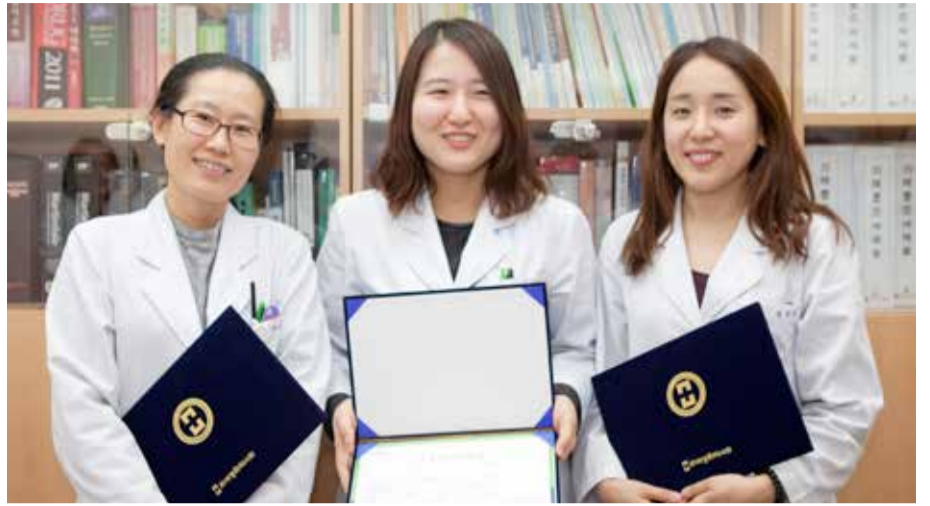
11월 23일 오후 3시에는 약 260명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운영 적정진료관리부장이 전 직원 공통항목 및 의료진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 강의를 시행했고,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같은 내용에 대해 진료부 병원평가책임교수 교육이 진행됐다. 11월 25~26일, 30일에는 총 3회에 걸쳐 배재현 비뇨기과장의 인턴/전공의 대상 교육이 추가로 진행됐다. 이번 자체조사는 ‘정확한 환자 확인, 손위생, 직원안전, 화재안전, 금연, 낙상, 부서의 질 향상 활동 및 지표관리, 환자안전, 진료지침개발 및 관리, 구두지시, PRN처방, 정확한 수술/시술부위표식, 수술/시술 전 확인사항, time out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소화기내과 이상우 교수 대한소화기학회 이사장 취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화기내과 이상우 교수는 최근 열린 2015년 추계 소화기연관학회 합동 학술대회 및 대한소화기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이사장으로 선출됐다.

2년간 대한소화기학회(회장 류종선, 부회장 한준구, 정현용, 총무 김재규, 학술 박종재, 편집 객금연, 재무 김주성, 보험 지삼룡, 전산정보 서동완, 섭외홍보 이용찬, 교육 배시현, 윤리 강대환, 부총무 임형준, 임종필 교수)를 이끌어 갈 이상우 교수는 14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을 역임했고 헬리코박터 감염과 소화성궤양, 위암 등을 비롯한 소화기질환의 진료, 연구, 교육에 뛰어난 업적으로 국민건강 발전에 이바지했다.📌



약제팀 장미화, 윤한샘, 방인정 약사 영양약료 전문약사 자격시험 합격

고대 안산병원 약제팀 장미화, 윤한샘, 방인정 약사가 지난 11월 7일에 실시된 '2015 제6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전문약사는 한국병원약사회가 치료 성과 및 환자의 건강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전문 분야에 통달하고 약물요법에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약사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내분비질환약료, 소아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총 7개 분야로 나뉜다. 세 약사는 영양약료 분야에서 합격했다.

환자안전과 약물치료 극대화를 위해 전문약사시험을 시행 중이며 시험을 통해 지금까지 전국에서 전문약사로 인정받은 약사는 378명에 불과할 정도로 자격 요건이 엄격하고 응시자격도 까다롭다.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공통과목 200시간 이상, 전공이론과목(실습포함) 16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 중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다.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세 약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 본원에서 환자에게 보다 전문적인 임상 약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약제팀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며 향후 약대생 실무실습에 대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 등을 개발해 전문인력 양성에도 앞장 설 예정이다.📌

<p>소화기내과 이상우 교수</p> <p>대한소화기학회 회장 대한 Helicobacter 및 상부위장관 연구학회 재무이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 역임 대한 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학회 회장 역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p>	<p>전문분야</p> <p>상부위장관(소화성궤양, 헬리코박터 클리닉)</p> <p>진료시간</p> <p>오전(월) 중일(목)</p>
--	---



올 한해 안산병원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2015 교직원 화합을 위한 송년의 밤' 행사 개최

고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이 올 한해 병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15 교직원 화합을 위한 송년의 밤' 행사를 마련했다.

교직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난 12월 11일(금) 오후 6시 고잔동 GD컨벤션에서 개최되었으며, 차상훈 병원장, 최병민 진료부원장, 송우혁 기획실장, 송효성 경영관리실장, 이경진 간호부장을 비롯한 750여 명의 교직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 송년의 밤을 함께 했다.

2015년 고대 안산병원은 메르스 사태, 외래 리모델링 등 많은 일이 있었고 특히 메르스 사태에는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전 교직원들이 합심하여 부단히 노력한 덕분에 안산시에서 단 한명의 메르스 확진자 없이 철통같은 방역체계를 구축했다.

차상훈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 메르스 사태로 고생이 많았을텐데, 이번 행사를 통해 교직원들이 함께 어울리고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며 "오늘 송년의 밤 행사가 한 해를 정리하는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라며 내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기로 풀어보는 의료윤리상황 속 딜레마 개원 30주년 기념 간호윤리 상황극 콘테스트 성료!

고대안산병원 간호부(부장 이경진)는 지난 12월 11일 개원 30주년을 맞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윤리적 딜레마와 희노애락을 공유하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간호윤리상황극 콘테스트를 주최하였다.

원내 임상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업무원, 조무사, 수간호사 그리고 교수님의 깜짝 출현 등 다양한 직종의 교직원들이 참여하여 함께 각본을 쓰고 배우가 되어 상황극을 선보였다.

▲간호사의 인생, 나는 간호사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지친 일과 속의 베테랑 ▲평등한 세상 ▲내 안에 백의의 천사 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등 총 6개의 멋진 무대를 선보인 간호사들은 "전문직 간호사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숙련된 기술과 더불어 직업윤리와 도덕정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마음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보람찬 모습을 보였다. 이 날 최우수상의 영광은 '지친 일과 속의 베테랑'으로 멋진 무대를 선보인 외래팀에게 돌아갔다.📌



시흥, 화성, 안산시 의사회 통합학술대회 개최 '지역의료 선진화 위해 최선을 다해'

고대 안산병원(병원장 차상훈)은 지난 11월 14일 본관 대강당에서 '2015년 시흥·화성·안산시 의사회 통합 학술대회' 약 100여명의 의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통합학술대회에서는 박종태 고려대 안산병원 진료협력센터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호준 안산시 의사회장의 축사, 최병민 고려대 안산병원 진료부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최병민 진료부원장은 인사말에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시흥, 화성, 안산시 의사회와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지역병원과 함께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지역병원들과 교류하며 최신의료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호준 안산시 의사회장은 축사에서 "자리를 마련해주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거점병원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개원의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며 함께 발전하는 관계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통합학술대회는 준비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진료협력센터는 지역내 협력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거점병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지역병원과 상생하는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힘을 예정이다.



안산시 재난지원 유관기관 심포지엄 개최 재난충격 이후 지역사회 대처자원 및 회복 프로토콜 개발

고대 안산병원 단원재난의학센터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 재난충격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팀은 12월 28일(월) 오후 3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2층 대강당에서 안산시 재난지원 유관기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에서 벌어진 대형사고와 재난충격 이후 사회적으로 부족한 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 운영 방안을 위해 마련된 심포지엄은 국민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치료를 위한 프로세스 확립에 관심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7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온마음센터,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단체의 전문가들이 모여 사업 및 진행방향과 함께 자문과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차상훈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눈에 보이는 질병에 대한 치료와 예방의 차원을 넘어서 심리와 정신적 안정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며 '의료지식 및 첨단기술과 함께 환자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심리치료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대 안산병원 최소침습수술연구회 심포지엄 개최

고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11월 27일 오후 3시 대강당에서 '최소침습수술연구회 심포지엄 및 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금번 심포지엄은 최소침습수술연구회가 창설한지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고대안산병원의 로봇수술도입과 맞춰 로봇수술과 최소침습수술을 연계하는 주제로 진행됐다.

차상훈 원장은 축사에서 "다빈치S 로봇을 들여오게 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최소침습수술연구회의 연구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오늘 심포지엄으로 임상 각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봇수술의 현재를 돌아보고 안산지역의 최소침습수술 인프라 구축과 로봇수술 발전에 큰 기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Robotic and Minimally Invasive Surgery'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 임상과에서 진행되고 연구되고 있는 로봇수술과 최소침습수술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방향성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특히 최소침습수술연구회 초대회장이었던 박정용 교수를 모시고 미래의학과 최소침습수술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테크노파크 인력보조로봇클러스터 컨소시엄 논의

고대 안산병원 (원장 차상훈)은 지난 12월 4일 경기테크노파크 인력보조로봇클러스터 기업체 관계자의 내방을 받았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양대학교와 유관의료기기업체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고려대 안산병원의 연구 및 진료시설을 둘러보고 병원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기관 간 의료기기 R&D 컨소시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차상훈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산병원은 연구중심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금년은 다빈치를 도입하여 로봇수술을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에 관심과 투자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서 간담체외과 윤삼열 교수는 '다빈치 로봇수술의 도입으로 다양한 연구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외부기관과 협조로 연구의 성과를 높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인력보조로봇클러스터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컨소시엄구성으로 양 기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대 안산병원 로봇수술 도입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10년간의 최소침습연구와 로봇수술의 만남으로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외과수술은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상처로 사람 몸속의 장기를 수술할 수 있는가?' 라는 최소침습수술이 주된 이슈이며, 로봇수술은 최소침습수술 이슈에 정점에 도달한 첨단 수술기술이다. 고대 안산병원은 의료진들은 연구와 수술경험을 통해 최고의 최소침습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소침습수술센터를 통해 10년간 연구해 온 다양한 기술이 로봇수술이라는 최첨단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최소 절개로 복잡한 수술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대 안산병원에 도입된 다빈치 수술시스템은 인체 공학 서전 콘솔, 4개의 인터랙티브 로봇팔을 장착한 환자 카트, 3D 고화질 영상시스템 및 로봇팔에 부착하는 초소형 장비인 엔도리스트(EndoWrist)로 구성된다. 이러한 최첨단 기기로 수술부위를 최대 10배 확대한 입체영상으로 관찰하여 정확한 파악과 수술이 가능하고 의사의 손동작을 떨림 없이 로봇 팔로 전달하여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전립선암 로봇수술의 경우 확대된 수술부위 영상을 보면서 세밀하게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휴증이 적고 특히 성기능 보존확률이 높기 때문에 성생활을 영위하는 남성들에게 로봇수술은 기존 수술법에 비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장암의 경우 복강경 수술에 비해 3배 이상의 수술효과를 볼 수 있다. 수술시야가 육안보다 10배정도 확대 될 뿐 아니라 복강경 수술이 2차원 영상으로 이루어진 것에 반해 3차원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림프절까지 보여 섬세하고 정밀한 수술로 자율신경보존이 뛰어나 배뇨와 성기능장애가 적다.

산부인과는 자궁경부암 및 자궁내막암 등의 부인암과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의 양성 질환에 대해 폭넓게 로봇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로봇수술은 기존의 복강경 수술과 비교하여 암 수술의 효과는 비슷하면서도 보다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여 방광 기능과 성 기능에 연관된 신경 보존이 가능하여 수술 후에도 후유증이 적게 발생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근종을 제거할 때 섬세한 봉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궁파열의 가능성을 줄여 가임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갑상선 로봇수술의 경우 기존의 방식으로는 2차원적 화면으로 목 깊은 곳에 있는 수술이 쉽지 않다는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3차원영상과 다양한 각도로 관절조작이 가능한 로봇팔을 이용해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술 이외의 기관을 보호한다. 또한 절개상처가 거의 보이지 않아 갑상선질환의 비율이 높은 여성환자들에게 미용의 효과도 가져온다.

이외에도 로봇수술은 특정 수술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암치료에 적용이 가능하며 뛰어난 숙련도와 수술 노하우가 축적되어있는 고대 안산병원의 의료진에게 신기술이 접목되었을 때 그 효과는 배가 된다.

이처럼 로봇수술을 이용하면 작은 절개만으로 복잡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증 및 출혈감소, 입원기간 단축, 합병증 발생 감소와 같은 다양한 이점이 있고, 부위가 작고 좁아 수술하기 까다로운 질병을 가진 환자일수록 더욱 효과적이다. 앞으로도 고대 안산병원은 로봇수술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가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만족할 수 있는 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